



16년
12년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명품건축도시로 조성해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주변지역과 관계저 제약 없는 개발 가능한 장점 활용
혁신 건축설계 보장 위해 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 제안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명품건축도시로 조성해 새만금의 도시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품건축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명품건축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프로젝트 추진을 담은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수변', '친환경', '스마트'를 주제로

2015,000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북연구원 오병록 박사는 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규제가 많은 기존 도시와는 달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에 개발되는 스마트수변도시의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 박사는 다양성과 정체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찾아가 보고 싶은 스마트수변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큰 틀과 기준을 제시하는 '스마트수변도시 명품건축도시 조성 전략'과 '스마트수변도시 명품건축도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스마트수변도시에 선도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이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을 기점으로 기반시설 조성 과 이를 토대로 국제업무, 관공여가, 농생명, 산업연구 등 권역별 개발을 완성하고 전북의 성장거점이자 우리나라의 대표도시를 넘어 글로벌 신산업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EF 국제스포츠 페스티벌 개막 퍼포먼스
지난 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EF 2022 국제스포츠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이광재 국회의원사무처 사무총장, 진선미 국회의원, 양영숙 국회의원, 유정주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본과 경제동상·지방정부 공공외교 교류 강화

김관영 도지사, 15~18일 日 도쿄·가고시마현 등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세일즈 외교활동이 일본으로 확장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와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전북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 경제동상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지방정부간 공공외교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김 지사는 방문 첫날인 15일 현지에서 일본 언론을 만나 방문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문화, 대일 지방외교 현황 2023년 개최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 지사는 이어 재일 한상인과의 간담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방안을 놓고 전북도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주)도레이 닛카쿠 아키 히로 회장과 면담을 통해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은 물론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16일에는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와 수출관로 개척과 대일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는 지난 2005년 창립, 한국 농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3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대일 수출 확대 및 합리적 유통망 구축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지사는 전북도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으로 발길을 옮겨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 지사와 공식 외교활동 등을 벌인다.

가고시마현은 전라북도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해외 지방정부로 올해로 33년에 걸쳐 청소년 행정, 문화, 농업,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사의 가고시마현 방문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공식 일정 마지막날인 17일에는 가고시마현 소재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전라북도 한지 공예품을 전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와 더불어 도쿄 제일전북도민회원들을 만나 전북, 전북인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화합의 장을 연 뒤 4일간의 배쪽한 전북도 대표단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경수 기자

합화와 수출관로 개척과 대일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는 지난 2005년 창립, 한국 농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3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대일 수출 확대 및 합리적 유통망 구축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지사는 전북도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으로 발길을 옮겨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 지사와 공식 외교활동을 벌인다.

가고시마현은 전라북도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해외 지방정부로 올해로 33년에 걸쳐 청소년 행정, 문화, 농업,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사의 가고시마현 방문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공식 일정 마지막날인 17일에는 가고시마현 소재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전라북도 한지 공예품을 전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와 더불어 도쿄 제일전북도민회원들을 만나 전북, 전북인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화합의 장을 연 뒤 4일간의 배쪽한 전북도 대표단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경수 기자

고창 육용오리 교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전북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올해 동절기 두 번째로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앞으로 신속하게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8호, 38만9,000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방을 실시했고 정밀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교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강화물 같은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을 저하 등 교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적립기금, 주요 정책사업 등에 사용”

도교육청, 경기 불확실성 등 대비 재원 비축 필요 등 근거로 들어
전북에듀페이 지원·학교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기금 집행
국가 정책사업에 의무부담 확대 따라 재원투자 필요시 활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일부 매체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도교육청이 밝힌 기금 적립 근거로는 △향후 경기 침체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확실성과 중앙정부의 건축재정에 대비한 재원 비축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위한 개편 논의 등 추후 교부금 재원 규모 불확실성 대비 △유아교육비지원특별회계 지원 연장 법률 미 통과로 지원 중단 대비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우리 교육청 의무부담 확대에 대비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

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금 집행(활용) 계획으로 먼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기금사용 요건 발생 시, 해당연도에 집행계획 수립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용해 재원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전북에듀페이 지원, 학교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이 있다.

이어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밀학급 해소 등 향후 미래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음으로,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국가 정책

사업에 전북교육청 의무부담 확대에 따라 재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이는 경기 변동에 의한 세입감소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 부족 시 적립금 사용으로 재정압박 완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2020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021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2011년)을 설치한 바 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금과약정을 체결(약정기간 2022~2025년),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예금금리나 협력사업 출연금 등을 농협은행과 조율해 재정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 주세요.

지안고원
JINAN GOWON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주세요~

2023. 1. 1. 부터 진안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 또는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곡류, 수삼(인삼),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27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연구협력팀 063-430-2830